

## ‘프리미어 파트너 컨퍼런스’ 한국 개최

한국후지제록스(주)

취재 | 박지연 기자

후지제록스가 아태지역 13개국의 디지털 인쇄 시장 고객을 한국으로 초청해 업계의 최신 동향과 지식을 공유하는 글로벌 세미나가 한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 [www.fujixerox.co.kr](http://www.fujixerox.co.kr))는 아태지역 디지털 인쇄 시장의 고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 인쇄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프리미어 파트너 컨퍼런스’를 지난 11월 23일과 2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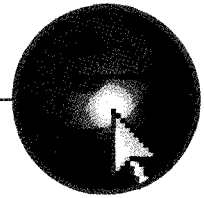
이에 앞서 11월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9년 프리미어 파트너 컨퍼런스’ 소개와 한국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 사업 전략 및 2010년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인쇄 관련 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마스다 다케시 한국후지제록스 대표이사 사장, 아소 슈지 후지제록스 PS사업부 전무, 신상현 한국후지제록스 마케팅 실장과 한옥경 홍보팀장 등이 참석하여 프로그램별

진행에 나섰다.

신상현 실장은 “프리미어 파트너 컨퍼런스는 후지제록스와 제록스만의 차별화된 고객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디지털 인쇄 시장의 고객을 초청해 업계 동향, 디지털 인쇄 산업의 전망, 기술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사”라며 “후지제록스는 아태지역의 13개국을 순회하며 매해 한 차례씩 프리미어 파트너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며, 상하이, 도쿄, 시드니 등에 이어 2009년 11월 서울에서 6번째로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시장 전략 등에 관하여 아소 슈지 전무는 “후지제록스의 현재 사업 영역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사무기기분야가 55%로 아직까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프린터 17%, 글로벌(솔루션) 서비스 22%(이중 디지털 인쇄 13%)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앞으로는 글로벌 서비스 분야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사업 전략과 관련하여 마스다 다케시 사장은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인쇄시장에서 디지털 인쇄가 급속히 늘어나 올셋 2.1%, 디지털 32.0%의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컬러 디지털 시스템이 전체 디지털 인쇄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히 프린팅만 해서는 안 되고 마케팅 서비스를 펼쳐야하는 쪽으로 시장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금번 프리미어 파트너 컨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인쇄 산업이 한층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1월에 새롭게 런칭할 계획인 디지털 인쇄기 ‘누베라 200’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가 이어졌다.

한편, 11월 23일부터 열린 프리미어 파트너 컨퍼런스에는 아태지역 13개국에서 약 200명의 고객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디지털 인쇄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조망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인쇄 컨설팅 업체 비주케이트(Bizucate)의 피터 뮤어 대표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디지털 인쇄의 핵심 비즈니스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컨설팅 업체 프린트코치(The Print Coach)의 대표 닉 디바인은 높은 수익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쇄업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어도비, 엑스엠파이(XMPie), 레이저맥스(Lasermax) 등이 스폰서 업체로 참가해 최신 디지털 인쇄 솔루션을 발표했다.

제록스 프리미어 파트너 프로그램은 2000년 개최된 국제 인쇄 박람회 드루파(Drupa)에서 처음으로 발표됐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700개의 프리미어 파트너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2008년 프리미어 파트너 컨퍼런스 당시 참가자들의 모습



▶ 11월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다 다케시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이 한국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사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광학세계』 원고 모집 안내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세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원고 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이달의 독자, 칼럼 등
2. 원고 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 마감 : 수시 접수중

※ 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

- 연락처: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편집부
- TEL: 02-3481-8931
- FAX: 02-3481-8669
- E-Mail: pjy@koia.or.kr